

福音新聞

THE GOSPEL NEWS

1. 教會에 革新을!
2. 社會에 變革을!
3. 世界에 所望을!

『오늘의 구원』世界會議

WCC 宣教委主催、방콕서 開催中

多様な世界속의 宣教

現代의狀況 아래 「그리스도에 의한 救援」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基督教의 根本命題인 이 물음에 오늘 全世界 여러곳에서 새롭게提起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解答을 試圖해 본다. 마음의 平安, 社會正義를 위한 道전, 等等 여러가지 解答들이 있을수 있다. 또한 오늘의機械主義化된 現代人들에게 어떻게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다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큰 잇수인줄 안다. 12월 28일부터 1957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世界宣敎委員會 主催로 방콕 회의에서 이 문제를中心으로 토의하게 된다.

이런會議에 世界各國의 教會에서 青年代表를 包 含한 二百五十餘名이 參 席하리라고 하는데 우리 敎團에선 李仁夏總務가 參 席한다. 이會議에 이어서 一月九일부터 十二日까지 WCC의 C W M E (世界 宣敎部)의 第三回大會도 열리게되며 주로 W C M E에 關한 事務의 人 事 項이 協議된다. <오늘날의 宣敎>의 焦點은 世界> 各國에서 教會의 宣敎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問題에 直面하고 있는가를 討論하게 될것 인데 各國의 NCC에선	이상과 같은 主題가 여 러가지 形式으로 討議되 어온것이었는데 이러한 여 러나라의 具體的인 報告 를 總合하여 세가지 部 門으로 分化해 協議하게 될것이다. 第一部門의 主 題는 <文化와 獨自性> 인데 (7)他宗教, 他이데올 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 람들과의 對話, (8)基督者 로서의 獨自性和 人種의 인 獨自性, (9)文化的인變 容과 回心の 細部로 나 누며 第二部門의 主題는 <救敎와 社會正義>인데 특히 抑壓당하고 있는 地 域에 사는 基督者들의	問題인바 (7)急激한 革命 的인 變化속에 있어서 (8) 經濟的인 搾取的인 狀況下 에서 (9)國家造成的인 計畫 과의 關連에서 (10)地域關 爭과의 關連에서 등 네 分科로 나누인다.	第三部門의 主題는 <宣 敎로 말미암아 革新된敎 會>이며 細分하면 (7)여 러가지 關係속의 敎會, (8) (9)成長하는 敎會와 革新 (10)地域에있어서의 宣敎의 共同役事이다.	敎會의 成長이란 다만 數字上的인 增加를 의미하 고 말 것인가? 그렇지않 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
---	---	---	--	---

JNAC에
李총무出發

인가?	어떻게 대답해 나갈 것	를 《오늘의 구원》에서	있는나》는 주님의 경고	말세에 믿는자를 보	實 아닌가?	어가고 있는것도 또한事	界를 区分키 어렵게 되	基督者와 非基督者의 境	各國의 狀況은 점점	가 必要한것인가? 오늘날	動을 위해선 어떤 機持	命이 넘치는 教會의 活	세 무엇을 意味하며 生
-----	--------------	-----------------	-----------------	------------------	-----------	--------------------	-----------------------	--------------------	------------------	---------------------	-----------------------	-----------------------	-----------------------

各地서査經會

해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신앙으로 새출발을期하기 위해 우리教會에서 査經會가 열려오고 있었는데 금년 정초에는 다음과같이 열린다.

中部地方은 名古屋教會에서 2日、4日 辛翼鎬牧師를 講師로 모시고 고豐橋教會는 楊炯春牧師가 담당한다 (1日、3日).

한편 関西地方은 大阪教會에서 열리며 서울한인교회 曹德鉉牧師를 招請 2日부터 4일까지에 정하고 있다.

또 관동지방은 一月七日주일 저녁 東京教會에서 연합예배를 갖는다.

謹賀新年

一九七三年 元旦

福音新聞社

過去 日本基督教團은
美國과 캐나다의 七
派와 宣敎關係를 맺
었다. 그러나 이번
이 關係를 日本基督
團뿐 아니라 日本全
에 있는 他敎團과도
다 넓은 範圍에 擴
시키기위하여 日本·
美兩地域宣敎協議會
를 月十七·八일에 뉴
욕에서 創立하기에
이다.

本總會가 同協議會
準會員으로 加入하
게된 것은

①美國敎會側에서
敎團의 加入을 要請
은바 있고하여 昨年
一月二十八日 本總
會에서 討議한 결과
캐나다敎會와의

오늘의
焦点

史的關係를 尊重하는 뜻에서 同協議會엔 準會員으로 加入하기로 하였고

② 보다 큰教團인 在美教派들과 關係를 맺음으로 보다 넓은 相互 關連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의 焦点

同協議會에 加入하므로 새삼스럽게 밝히지는 歷史的意義를 살피면

(가) 우리 教團은 카나 다教會와 關係를 맺어 오기전에 母國教會를通해 美國教會와는 이미 歷史的 關係가 있었음을想起할때, 그 關係가 回復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나) 우리 教會가 比魯작은 教會라 해도 에큐메니칼運動이 指向하는 뚜렷한 役割을 가지고 있음을 再認識하며

(다) 日本에 있는 韓國人의 人權問題를 보다 넓은 意味에서 國際的連帶關係 속에 틀로츠엄시킬 수 있게 된다

(리) 또한 같은 會員의 關係 속에 있게 되는 日本基督敎團과의 새로운 關係를 의미하게 되며, 특히 日本社會의 差別構造를 日本基督敎團의 責任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和解위한
前進基地되자

이 여가서 우리는 우리로써 証人의 役割을 하

리 온것이 아니니 그럼 을 주려 왔노라』는 말 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일까? 그것은 人間의 自由와 平和를 妨害하 는 모든 惡한 勢力과 의 싸움을 意味하는것 이 아닌가?

또한 우리 敎會는 이 世上에서 참된 先知者 로써 証人의 役割을 하

고 있다. 勿論 예배의 共同體이다. 그러나 예배 의 共同體는 奉仕의 몸 이나서 主에 수를 어디 까지나 따라가는 信仰 과 姿勢와 行爲를 지 나야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 敎會 는 疎外된 者들의 참

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의 社會의 生活 주변에 서 이것이 없는 平和 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궁극적인 투쟁을 意味하는 것이다.

敎會는 勿論 예배의 共同體이다. 그러나 예배 의 共同體는 奉仕의 몸 이나서 主에 수를 어디 까지나 따라가는 信仰 과 姿勢와 行爲를 지 나야 하겠다.

是 既存文化、既存秩序 속에서 安住하려 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로써 証人의 役割을 하고 있다. 눈에 안 보이는 神은 사랑하지만 눈에는 보이는 人間、社 會에 대하여는 면화 고 있다.

敎會는 勿論 예배의 共同體이다. 그러나 예배 의 共同體는 奉仕의 몸 이나서 主에 수를 어디 까지나 따라가는 信仰 과 姿勢와 行爲를 지 나야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 敎會 는 疎外된 者들의 참

教會의 弱點인 싸우는 면에 焦點을 맞추어 깊은 反省해 보자. 우리 教會는 十字架의 福音을 가지며 또한 十字架를 지는 體驗을 하는 教會이다. 그것은 바로 教會이다. 그것은 바로 教會는 예배의 共同體의 苦痛, 우리의 苦痛은 나 는 되었으나 아직도 宣

여야 되는 責任이 있다. 真理를 가지고 숨 어 있는 事實을 밝히 고 世界의 真相이 어 던가를 바로 診斷하며 果敢한 証言을 하는 姿 勢가 必要하다. 오늘의 教會는 共同體의 苦痛을 잊고 이 世上에 受肉하지 않으면 그 召命의 意味는 없다. 教會는 信徒의 安息處, 오 아시쓰가 아니라 하나 님의 뜻을 이루는 活 動的인 前進基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 게 되기 위하여는 教會

이웃이 되는 일이다. 「善한 사마리아人」의 비 유에서 참 이웃이란 것 은 넘어진者, 죽어가는 者 옆에 가서 그 사람 의 苦痛에 参与하는 일 이다. 즉 오늘까지 아무런 상종도 없고 낯 선 사람이지만 그 사람

金得三
会長

新年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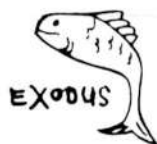
새해를 맞이했다. 七
· 四共同声明과 十・十
七 特別宣言之 해, 希
望과 빛 憂慮과 不安
을 內包한 채 해는 새
로 바뀌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나 새로운 것을
切實하게 念願한다. 어
떻게 하면 새로워
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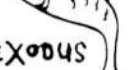


을 自己의 家族, 兄弟
와 같이 待遇하는 일
이다. 在日同胞 六十一
萬人 分裂된 民族國家
를 背景으로 하여 自
수와 對敵과 같은 不自
然스러운 狀態에 놓여
있다. 이런 現實 속에
서 우리 教會는 서로

東京교회増築

鐘塔과 게스트·룸(2室) 牧師室들을 増築하였다. 이 일은 同敎會 이점금씨를 50萬圓을 위해 2百10萬圓의 예산으로 着手하였다. 同敎會에는 本國과 地方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 客室이 不足한 狀態였다.





EXODUS

다. 東・西・南・北으로 분
 割된 民族가운데서, 多數
 者에게 抑壓된 少數者에
 게서, 少數者에 의해 支
 配당하고있는 나라들에서
 武力에의해 統治된 民衆
 에게서 그리고 암만 애
 씌 일해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없는 經濟體制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가
 가운데서 正義를 부르짖
 고 自由와 解放을 求하
 는 소리가 들러오고 있
 다. 除夜の 鐘소리도 새
 해의 歡喜도 이 소리를
 지울수 없고 새겨는 숙
 제를 알은채 새해를 마
 치한다. 「가난한者에게 福
 音を 전하며, 로로된者를
 解放하고 눌린者에게 自
 由를(눅4・18) 주는 메
 시지가 그들을 慰勞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바
 라며, 「주님은 全能하
 신 팔을 펼치시어 교만

▼世界여
 러곳에서
 正義를부
 르짖는소
 리가 들
 러오고있
 었었다

것없는
 (눅1・51~52)는 말씀이
 힘있게 宣布되고 또한社
 會正義를 위한 敎會의使
 命이 새해와 더불어 再
 認識되어야 할것이다.▼그
 러나 모든것은 人間性的의
 根本的인 改造(再創造)
 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自己
 否定을 媒介로 하나님의
 永遠한 사랑으로 이루어
 졌다.▼이러한 自己否定
 으로 確立되는 正義와 사
 랑(아가페)의 福音만이
 革命以上の 것이 될수있
 고, 거기에서 人間과 社
 會의 再創造가 이루어질
 수있는것이다.▼歷史에기
 록된 ××運動、○○精神
 △△革命、□□維新, 今年
 은 또 어떤 單語가 뒤
 어나올것인가? 福音의同
 志여! 우리는 그以上的의것
 을 가지고 있지않는가?
 혹시 그 寶貨를 땅에파
 묻고있지나 않는가? 나사
 로의 옷을 입은 主가문을
 밖에서 명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
 드리고 서계시지않는가?

本報는 그동안 洪東根
牧師編集責任下에 閔西의
여러 同役者들께서 協助
하여 발간되어 왔는데,
이번에 東京事務所에서楊
炯春牧師 編集責任 아래
閔東의 여러 同役者들의
수고를 빌게 되었다.

不 動 産 業 務 全 般

土地・建物・山林売買・仲介・管理及び投資の御相
談、不動産の事ならお気軽に御一報下さい。特に信
者の方には遠近にかかわらず無料相談に応じます。

免許番号・愛知県
知事(1)第 5 4 2 6 号

大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洸

営 業 所 名古屋市熱田区熱田西町五反畑 1 番地の 4
(名古屋中央却市場入口 南側 大栄ビル)
電話 (052) 682-1177 (代)

自 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1406の 3
電話 (052) 771-5952

伝道局長
金徳成

작년에 우리 총회가 새로
로운 기구로서 인사국을
설치했다. 잘못 생각하면
인사문제에 권세를 부리
고 독재적으로 인간을 관
리하는 국으로 오해될 우
려도 있겠지만 다사다양
화 되어가는 형태에 적
응해서 이 시대가 요구
하는 전문적이고 소명적
인 인재를 양성하며 어
디까지나 교회에나 기관
의 인사관계에 신진대사
를 주입시키고 교회혁신
의 일익을 짊어지는 데
그의의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인사문제에 관
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공
평하여야 되며 본인의 입
장 교회의 사정을 고려
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처
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
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우리 총회의역
사를 인사문제에 관하여
서 회고한다면 오늘날까
몇명의 유명한 인물은 배
출했지만 지도자들을 추
분히 양성하지 못하였다
는 반성을 하지않을수없
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
리의 과제는 산적한 내
외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
악하면서 과감하게 자신
있게 대처하며 전개해나
가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양성하겠느냐에 달려있다.

금년 일년동안 적극적으로
로 이 목적달성을 위하
여 충성을 다하려고 결
심하고 있다.

品川教會는 教會堂인 教會로
는 教會이다. 처음부터
教會堂없는 教會로
發하였고 앞으로 敎
會堂있는 教會로서 官
敎活動을 展開하게
것이다. 그러므로 固
定된 場所에 人들을 모
으는 教會가 아니다.
길 잃은 아흔아홉미리양
을 찾아다니는 教會이
다. 따라서 官敎活動도
밖으로 찾아나가지 不
어저있는 家庭을 中心
으로 하여 展開된다.



교회당 없는 品川教会 教友들

에배를 말은 家庭은 그 家族들과 그 周圍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에배드리는 데 힘쓴다. 여기에서는 십자가도 宗教의인 霧에 또한 對話拜가 큰 意味를 갖는다. 主日날

빌린 어떤 事務室에서
 둘러앉아 미리 準備한
 세 平信徒가 그 生活
 속에서 理解한 메시지
 를 각각 証言하고 그
 후에 自由로운 對話를
 통하여 各信徒의 여러
 가지 立場에서 메시지
 內容을 具體化하며 윤
 택하게 한다. 이 對話
 札拜에 처음으로 參加
 한 친구는 〈익을
 수없는 것은 印象을 받
 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品川教會의 課
 題는 教會堂만을 찾는
 것도 아니라 敎人數가
 많고 적은 것도 아니
 라 〈부끄러움 없이 :
 : 온전히 담대하여 살
 든지 죽는지 우리 몸
 에서 그리스도가 높임
 을 받게 하려는 그것입
 니다 (빌립보 1·21)〉

肉身을 위하여 무엇인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
 었을 임을까 念慮하지 말
 고 하나님 앞에 全部를
 맡기고 죽으나 사나 줄
 거우나 괴로우나 凡事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一九
 七三年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聖書의 原點으로
 돌아가자. 聖書에 있
 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를 信仰하고 實踐하고 體
 驗하고 証據하는 者가 되
 시다. 참 信仰者만이 勝
 利의 生活을 할 수 있다
 고 믿는다.
 나는 財政局의 組織과
 立案도 좋으나 局活動이
 信仰에서의 活動이 되기
 를 바라며 뒷받침하여주
 시는 여러 敎友들 위에
 하나님의 祝福을 기도하
 며 새해의 인사 말씀을

西南地方会長 崔 昌 華



一九七三年 新年을 맞이하여 다음 몇가지 점을 생각하면서 地方會를 위하여 奉사코자 한다.

(1) 地方의 連合의 活動을 展開한다. 信徒間의 친목

가 끊임없는 對話가 계속되며 그 要求에 應하는 敎會形成에 努力코자 한다.

하야 存在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地域社会를 위하여 存在하여야 할 줄로 믿는다.

지나간 一年을 回顧하
여볼 때 여러가지 難問
題가 數多하였다。總會의
重責을 질머지고 充分히



財政局長 金漢弼

凡事에感謝하는해로



常に冷静で、むしろ挑戦的
でさえある。イエスはしる
しをもとめるユダヤ人の願
い聞き入れなかった。奇蹟
をもとめる心は、邪悪で
不義な時代の悪徳である。
(マタイ十二38以下)。パ
ウロの奇蹟に対する態度も

符を打つ（コリント前12以下）。
しかしイエスにしても、パウロにしても、奇蹟を敵視する啓蒙主義者ではない。現代の医学や心理学が、イエスの治癒について何と説明するにせよ、力ある業を

奇蹟とは なにか

—見ないで信ずるものは幸いである—

横浜教会牧師 金 君 植

呼びならされている書物の中で、例えば使徒ヨハネの行伝においては、ヨハネが南京虫の一群に人間の理性のようなものをさすける場面がおもしろく伝えられている。

このように、奇蹟の氾濫する当時の世界において、原始キリスト教の便信は非

いうまでもなくはつきりしている。ユダヤ人のしる乞いは、ギリシヤ人の知恵に對する欲求と共に拒否される。十字架につけられたキリストの言以外に、何も与えられない。このキリストの言が、両者の求めに終止

「奇蹟乞い」に對して、神は十字架の言でもって答へ給う（コリント前18）。この十字架の言には、人を乞ひつくりさせるものは何もない。しかしこの「言」に自己を無条件にあげ渡すものは、眞の奇蹟、即ち「罪の赦し」と云う奇蹟を経験する。（つづく） K・K

食品・薬品包装業

加富利産業有限公司

代表者 金漢弼

〒123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四―二五―一二
電話東京(〇三)八九〇―〇九五一代表

年

在日大韓基督教会

堂會長 李 昌 雨
臨時伝道師 金 顯 珠

〒733 広島市上天満町 9-3
牧師 金 信 煥

二濃清
道穆一